

또래간 도움제공 및 도움추구상황에 대한 아동의 목표와 전략 사용

- 아동의 학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차이 -

이 순 형(서울대 교수) · 이 옥 경(서울대 강사) · 민 미 희(서울대 박사과정)

본 연구는 가설적인 또래간 도움제공 및 도움추구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목표와 전략이 아동의 학년과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목표와 전략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3학년 아동 63명(일반가정 아동 31명, 이혼가정 아동 32명)과 6학년 아동 57명(일반가정 아동 29명, 이혼가정 아동 28명)으로 총 120명이었다. 도움제공 상황 과제와 도움추구 상황 과제 각각 2개에서, 각 상황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 후, 해당 목표와 자신의 생각과 일치 정도 및 해당 전략을 실제로 행동할 가능성을 5점 리커트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도움제공 상황에서 목표는 6가지(친구가 기분 좋아지도록 돕기, 걱정 표현하기, 문제해결 돕기, 사생활 존중하기, 연루 회피하기, 책임감 부여하기), 전략은 9가지(토의제기하기, 동정하기, 충고하기, 기운 차리게 하기, 사회적 활동 제안하기, 행동적으로 부정하기, 잊어버리기, 회피하기, 비난하기)로 구성된다. 도움추구 상황에서 목표는 5가지(기분풀기, 문제해결, 자아표현, 사생활 유지하기, 친구 참견시키지 않기), 전략은 6가지(털어놓기, 충고 구하기, 사회적 활동 찾기, 행동적으로 부정하기, 혼자 있기, 털어 놓기)로 구성된다. 통계적 방법은 빈도, 평균, 백분율, 이원변량분석, Pearson's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움제공 상황에서 사용한 목표와 전략이 아동의 학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 보다 목표 중 사생활 존중하기, 전략 중 충고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 보다 목표 중 걱정표현하기와 연루 회피하기, 전략 중 기운 차리게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도움제공 상황에서 사용한 전략 중 충고하기에서 아동의 학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데,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충고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충고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도움추구 상황에서 사용한 목표와 전략이 아동의 학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목표 중 기분풀기, 문제해결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전략 중 행동적으로 부정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도움추구 상황에서 사용한 목표와 전략에서 아동의 학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도움제공 및 도움추구 상황에서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사용하는 목표와 전략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간에 도움을 제공하고 도움을 추구하는 과제 내에서 아동의 목표와 전략이 아동의 학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목표와 전략간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우정 형성과 유지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에 중요한 함의를 시사하며,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 학년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준다.